

‘강행군’ 광주FC, 울산 잡고 재도약 노린다

오늘 K리그1 22라운드 맞대결
광주→강릉→울산 766km 이동
‘고온다습’ 체력 및 집중력 중요
이건희·가브리엘 등 체력 안배



시도민구단 돌풍의 맞대결에서 강원FC에게 일격을 당한 광주FC가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사령탑의 이탈이 확정되며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의 울산HD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파이널A권(6위 이상)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10일 오후 7시30분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2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무

더워진 날씨 속에 다시 보름간 다섯 경기의 강행군에 돌입한다. 광주는 강원에게 일격을 당하며 연승 도전에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제주를 상대로 2-1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챙겼지만 지난 7일 강원에게 0-2로 패하며 흐름이 끊겼다. 특히 체력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심해졌고, 장마의 영향으로 습도 역시 높아졌다. 지난 강원전의 경우 강릉의 기온은 28.7도, 습도는 64%에 달했는데 이번 울산전의 경우 기상청이 26도, 80%(오후 7시 기준)로 예상했다.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 이동 거리도 큰 부담이다. 광주 선수단은 강원전을 앞두고 광주에서 강릉까지 약 452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했는데, 이번 울산전을 앞두고

다시 314km를 이동했다. 선수단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전을 마친 후 강릉에서 묵은 후 울산으로 곧장 이동했지만 장거리 원정 경기를 연속해서 치른다는 부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정호 감독은 회복과 침착성을 강조했다. 지난 강원전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덥고 습한 날씨에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어떻게 회복시킬지가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많이 급했던 것 같다. 좀 더 침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구상했다. 강원전에서 적절한 체력 안배가 이뤄졌다는 것은 긍정적 요소다. 안영규와 이강현, 빅토 등이 경기에서 나서지 않았고 신창

무와 이희균, 베카, 이건희, 김한길, 가브리엘, 두현석 등은 출전 시간을 조절했다. 경고 누적으로 휴식을 취한 최경복도 전력에 다시 돌아온다. 울산은 11승 6무 4패(승점 39)를 기록하며 승점 1점 차 2위로 선두를 맹추격하고 있지만 수장인 홍명보 감독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선임되면서 이별이 확정됐고, 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발표 직후 팀 훈련에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를 믿고 울산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많은 만큼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팬들 역시 결계와 야유 등 집단행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8승 1무 12패(승점 25)로 8위에

위치한 광주는 울산을 잡는다면 6위까지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경기에서 서울(승점 27)과 제주(승점 26)가 각각 대전과 전북에게 패한다면 두 단계를 올라선다. 동시에 강등권과 격차도 벌릴 수 있다. 현재 승강 플레이오프권으로 10위인 대구(승점 21)와 11위 대전(승점 19)이 2경기 차 이내로 바짝 추격해오고 있고, 골장 강등을 당하는 최하위 12위 전북(승점 17)도 3경기 차 이내다.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4승 6무 16패로 열세였지만 지난해에는 2승 2패로 팽팽했다. 특히 최근 세 차례 맞대결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천적으로 군림한 강세를 이어야 한다. **한규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선수단장 등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뉴스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9일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결단식이 열린 서울 올림픽홀에서 근대5종 전용태, 펜싱 강영미·김재원, 유도 이해경,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등 광주 소속 5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파리올림픽 출전 광주선수단 격려

근대5종 전용태 등 4개 종목 5명
 광주시체육회가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파리 하계 올림픽 결단식에서 근대5종 전용태, 펜싱 강영미·김재원, 유도 이해경,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선수 등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8

월 11일까지 17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32개 종목에 206개국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대한민국은 22개 종목 234명(선수144·임원90)이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소속 선수로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메달을 획득하고 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2관왕을 달성한 전용태(광주시청)와 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영미(광주서구청), 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김재원(광주서구청), 2024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이해경(광주교통공사),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클라이밍 금메달리스트 신은철(더힐) 등 5명이 출전한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이 광주시민에게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해 주기를 기대하며, 현지의 무더위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최선의 기량을 펼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최동한 기자**

전남축구협회, 대한체육회장기 시·도대항 종합우승

전남축구협회가 제11회 대한체육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축구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9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축구협회에 따르면 전남 축구는 지난 7일 진도 아리랑체육공원축구장에서 폐막된 이번 대회에서 우승 1팀, 준우승 2팀, 3위 2팀 등을 배출시키며 종합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대한민국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 축구협회·전남축구협회·진도군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임원부, 남·여체전부, 일반부, 40·50·60대부, 전국고등부 등 전국부 8개와 진도 관내부, 진

남3부 등 총 10개부 128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전국임원부에 출전한 전남축구협회는 8강전 부전승, 4강전 제주도협회에 2-1 승, 결승에서 대한축구협회에 2-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40대부에서는 광양이스 팀이 경남40 팀에 세트스코어 0-2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50대부에서는 전남50 팀과 광양두발로 팀이 동메달을, 전국고등부에서는 전남고등부가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서석고 검도, 용인대총장기 13년 만의 단체전 우승

광주서석고 검도팀이 제27회 용인대총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13년 만에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서석고는 지난 7일 충남 청양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7인조) 결승에서 인천 서운고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을 이끈 서석고 이강산 부장교사와 남태운 코치는 각각 우수 부장상과 지도자상을 받았다. **최동한 기자**

이강산 검도부장 교사는 “휴일도 없이 밤, 낮으로 열심히 지도해준 남태운 지도자에게 감사하다. 올해 대한검도 회장기 단체전 우승에 이어 두 번째 단체전 우승을 이뤄 기쁘다”며 “송찬국 교장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한 기자**